

座中間部까지埋沒된石佛坐像一軀가 오래前부터部落民들의信仰佛로 있어서 이곳을 一名「부처골」이라稱하였는데 그후佛像臺座의埋沒部分을收拾하여 大雄殿의 主尊으로 奉安하고 現在의佛谷寺를이룩하였다는바 여기서 寺名의 由來도 짐작된다. 한편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三三三頁에 이곳 坐像에 對하여 若干의 記錄(註)이 있는데 內容으로 보아 前述한佛谷寺大雄殿主尊佛이 바로 이坐像이며 따라서三〇年前 建立된佛谷寺의 由來도 明白하다 할것이다. 現在 大雄殿 柱礎石中 四石이 古式으로서 一邊長 六〇cm의 方形中央에 四分圓의 물딩과 圓座(徑三五cm)가 마련되어 羅代의 手法으로 注目되었다. 또 大雄殿層階石으로 使用되고 있는塔石一枚가 調査되었는데 이것은 兩隅柱와 中央一撐柱가 刻出된點으로 이루어 보아 石塔下基面石으로 짐작된다(全長一九五cm 全高三四cm 隅柱幅 二一·五cm 撐柱幅 一二cm 撐柱高 二〇cm)

本尊佛인 坐像은 灰白色의 花崗石材이며 結跏趺座한 毘盧舍那佛이다. 굽은(太彫) 螺髮의 頭頂에는 큼직한 肉髻가 있고 兩眉間에는 白毫孔이 있으며 목에는 三道가 뚜렷하다. 兩耳下端에 若干의 磨損이 있을뿐 兩眼, 口鼻, 等 完全하다. 굳게 다문 口脣에는 微笑가 어리었고 양볼에는 살이 적으면서 밑으로 두턱이 젖는데 全體的인 印像이 溫柔한 相好라 할 것이다. 法衣는 通肩으로서 兩腕에 걸쳐 무릎을 덮었고 背面에도 衣文이 있으며 臍前에는 裙衣의 結帶가 보인다. 가슴이 堂堂하고 衣文이 流麗하며 均衡잡힌 優作이나 彫刻手法에서 若干 纖弱에 호는點으로 보아 年代는 羅末로 推定된다. 臺座는 上, 中, 下臺로 完全히 具備하였으나 大雄殿 建築時 坐像만을 奉安하고 臺座各部는 別途로 法堂前庭에 塔으로 쌓아 올려놓았다. 筆者가 調査時 寺刹側에 建議한바 곧 原形대로 復原하였다는 確答을 받은바 있으며 또 自己네들의 無智한 所行이었음을 自認하는것을 目擊하였다. 下臺石은 八角으로서 各面眼象內에는 一面만 花瓣이코 그外 七面에는 모두 꾸부린 獅子를 陽刻하였으며 그위에 八角 伏蓮臺石을 놓아 下臺를 構成하고 있다. 八角마다 一瓣式 八瓣의 流麗한 蓮瓣을 彫刻한 上面에 小, 中, 一段式의 반침과 一段의 큰 괴임이 마련된 위에 中臺石을 받고 있는데 八角 各面마다 隅柱가 表現되어 있고 坐

像一軀式을 陽刻하였다. 都合八角 모두가 圓形頭光이 있으며 合掌한 像或은 持物이 있는像等 各異한 容態이다. 上臺石은 圓形의 仰蓮石으로 下面에 中, 小, 一段의 角形반침과 四分圓의 물딩이 마련되어 있으며 仰蓮은 重瓣으로 各蓮瓣內에는 花瓣으로 다시 彫飾하였다. 上, 下臺의 蓮瓣手法이 豊麗함과 中臺各面坐像의 端雅한 彫刻이 더욱 注目을 끌었다. 實測值는 cm : 坐像高 一〇三 肩幅四八 膝高一八 下臺八角 一邊長四一·五 坐像頭高 三三 胸幅三三 膝幅七六 下臺八角 高三 高三 下臺伏蓮石 一邊長三六·五 中臺石高 二〇·五 上臺石高 八五이다. 以上에서 볼때 臺座上에 坐像이 奉安되는 原形을 하루라도 速히 이루었으면 좋겠다. 臺座의 各部도 磨損하나 없는 完全品임에 이 石造臺座위에 保存이 良好한 大雄殿의 坐像을 安置하고 本尊으로 奉安되면 貴重한 또 하나의 石造毘盧舍那佛의 一例가 될것으로 믿는다.

註「寺名由來共ニ不明 石垣ヲ遺ス 石佛ハ一尺六寸ノ臺上ニ靜座セル座像ニシテ高サ三尺四寸完全精巧ナリ」라 있다. 여기서 二尺六寸의 臺上」이라하여 이것은 下部의 埋沒을 뜻한다 할것이다.

### 慶州 皇吾里古墳整理調查概要

秦 弘 燮

文教部 文化財管理局에서는 慶州地區埋藏 文化財 整理調查計劃에 따라 그 第一次事業으로 慶州 皇吾里 · 皇南里의 古墳調査를 하게 되어 調査委員四人과 補助員 十一人이 委囑되었다. 委員은 金元龍(서울大) 秦弘燮(梨大) 金英夏(慶北大) 尹武炳(國博) 諸氏이고 補助員은 委員이 所屬된 機關에서 選拔되었던 것이다. 委員들은 지난 七月 二十一日 現地에 會合하여 調査對象의 古墳을 選定하였고 發掘方法은 各大學에서 一基乃至 二基를 分擔하기로 方針을 세웠다. 여기 尹武炳委員은 參席하지 않아서 結局 調査는 三個大學에서 分擔하게 되었다. 分擔한 對象古墳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 皇吾里 一號墳 (처음에는 三十六·三十七號墳 二基였으나 後에變更)

梨花大 皇吾里 三十三號墳 一基

慶北大 皇吾里 三十二·三十四號墳 二基

調査는 七月二十四일부터 八月十三일까지 繼續되었으나 內部構造가 豫想外로 複雜하여서 所期の 豫定을 다하지 못하고 一號墳과 三十四號墳은 後日の 追加調査로 미루고 中斷하였다. 各古墳의 詳細한 調査內容은 各發掘 責任者에 依하여 報告되었지만 爲先 여기서 大體的인 經過만을 記録하여 두고저 한다.

二一

—— 一號墳(서울대) ——

慶州驛 附近 蔚山街道와 大邱街道의 分歧點에 있는 로오타리에서 大邱街道로 들어서서 約三十m 左側에 新築 三層建物사이에 동그라니이 古墳만이 남아 있다. 封土의 北面은 道路에 臨해 있고 南面의 一部는 民家後苑까지 뻗고 있었다. 頽落은 되었으나 圓墳의 形態를 남기고 있었다. 이 封土內에는 南側에 長軸을 東西로 둔 主廓이 있고 西로 連해서 거의 方形의 副廓이 파랴다. 이 主廓의 北側에도 積石이 나타나고 있으나 時間關係로 그 調査를 後日로 미루었다. 南側에서 發見된 主廓은 封土頂上에서 約四m下에 埋葬되었으며 여기 날린 副廓은 이보다는 若干 높은 底面을 보였다.

封土나 積石의 構造는 慶州市內에서 볼 수 있는 通式인 積石木槨式과 同一하며 底面의 構造 亦是 同一하였다. 屍槨에는 東向하여 屍身을 埋葬하였고 頭部에 鐵釜를 비롯한 土器를 副葬하고 側面及 足部에도 若干의 土器를 놓고 있다. 裝身具로는 金製太環式耳을 비롯하여 銀製品들이 있었고 그 외에 鐵製品이 若干 있었다. 副槨에는 土器가 主로 副葬되었는데 屍槨의 土器보다는 比較的 大形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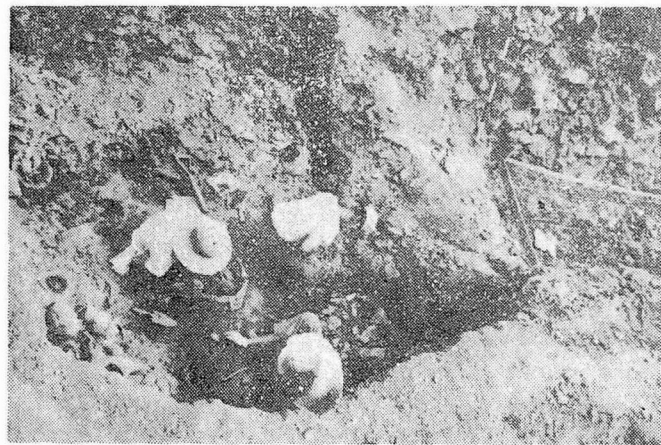
北側에 남아 있는 積石의 調査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이 古墳의 性格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三十二號墳(慶北大) ——

一號墳에서 다시 百餘m 前進한 左側路邊에 位置하고 있다. 本墳은 舊狹軌鐵道의 敷設로 因하여 北半 即 現道路에 面한 部分의 封土가 이미 除去되어 있어서 內部亦 攪亂되었으리라는 疑懼가 적지않았다. 不幸히 疑懼는 適中되어 道路面에서 一m餘나 밀으로 내려가도 混亂된 積石뿐으로 鐵道敷設基礎工事時 遺物層까지도 攪亂되었던 것으로 判定하였다.

—— 三十四號墳(慶北大) —— (사진)

三十二號墳바로 南쪽에 位置하였고 넓은 콩밭 가운데 一區가 若干높고 그 北端에 封土의 殘骸를 남기고 있었다. 따라서 積石은 곧 나타나났다. 積石은 처음에 長軸이 南北으로 나타났고 그 規模도 적었으며 그 北端 積石內에 一邊 約四〇cm 方形의 石室을 마련하고 高杯等 土器를 納置한 것은 特異하였다. 그러나 이때 나타난 積石은 事實은 그 後의 調査에 依하여 東西로 長軸을 둔 積石의 西端이고 東半은 封土가 없어지면서 相當數의 積石도 除去되어서 이러한 錯覺을 이르렀다는 것이 判明되었다. 이 槨 亦是 東쪽에 屍槨을 두고 連하여 西쪽에 거의 方形의 副槨이 달려 있었다. 이러한 本槨이 判明된 後 積石을 除去하는 途中 屍槨과 副槨의 境界가 되는 積



石 속에서 金銅製冠이 發見되었다. 그 位置는 槨底에서 一一〇(三〇cm)의 높이이고 그 上下左右에는 積石으로 充塞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裝身用具가 이런 位置에서 發見되는지 解釋하기 어려웠다. 冠은 鍍金이 거의 남지 않았으며 形式은 아직까지 發見된 金製冠과 같으나 勾玉을 볼 수 없었다. 屍槨에서는 頭上의 土器層, 細環式 耳環을 비롯한 銀製 腰帶等 裝身具와 鐵製 太刀 斧等이 發見되었다. 한편 副槨에서는 主로 大形 土器들이 눈에 띄었으며 그 사이에서 銀製 鞍橋가 比較的 좋은 狀態로 發見되었고 鐵製 鎧을 비롯한 馬具들이 섞여 있었다.

이 槨 南側으로 가는 거의 平地化된 封土의 痕蹟이 連續되었고 現 地表 下約 二m에서 다른 積石層이 나타났으나 後日의 調査로 미루고 中斷하였다.

——三十三號墳(梨花大)——

三十三號墳은 三十二號墳 西側에 隣接한 古墳으로 封土의 形態를 제법 갖추고 있었으나 北側 即 道路邊에는 封土의 北麓을 깔고 無許可 建築物이 들어서 있다.

本墳의 封土內에는 二個의 屍槨이 底面에서 約 5m의 間隙을 두고 東西로 있었던데 西槨은 長軸이 南北으로 南向해서 埋葬했고 東槨은 東西로 東向하고 있었다. 屍槨에서의 出土品은 鐵釜, 土器, 裝身具等 通式의 것이었는데 西槨에서는 赤色 土器가 없었다는 點과 武具 或은 馬具類가 極히 적다는 點이 注目되었으며 東槨에서는 白樺製 金箔冠帽가 發見된 點이 注目되었다. 이 東西槨의 底面 水平은 東槨이 낮았는데 그 中間에 位置한 副槨의 狀態로 보아 東槨이 먼저 만들어졌고 西槨이 後에 만들어진 것으로 推測 되었다.

西槨 中間에 位置한 副槨은 南側으로 치우친 것과 北側으로 치우친 것의 二槨이 있었다. 南側 副槨은 西側 屍槨의 底面과 比較하여 約 1m 높은데 平面은 거의 方形으로 小形 土器가 있었다. 北側 副槨은 이보다 約 一一〇(三〇cm) 깊이가 있었고 南北으로 긴 長方形으로 南北의 길이는 東側 屍槨의 南北의 길이와 比等하였고 底面 水平도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이 兩 副槨의 南北 斷面은 北側 副槨의 南端과 南側 副槨의 北端이

重疊되어 있는 點으로 보아 南側 副槨은 北側 副槨보다 後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推測된다. 北側 副槨에는 比較的 大形의 土器가 있었으며 특히 高一m는 되었으리라고 보여지는 大壺가 있었다. 여기서는 金銅環과 若干의 利器도 함께 發見되었다.

以上の 兩副槨은 東西 兩主槨에 屬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兩主槨은 出土 遺物로 보아 때를 달리하여 埋葬한 夫婦의 墓가 아닌가 推測된다. 皇吾里, 皇南里에 多槨式 墳墓가 있음은 이미 報告된바 數例를 볼 수 있으나 本墳의 構造는 그들 보다도 特異한바 있었다.

資料

高麗紺紙金泥大般若經殘卷

黃 壽 永

經名은 大般若波羅蜜多經으로서 본래 卷軸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이는計 十枚(各枚縱二八·七cm 橫五·五cm 上下野線一一·八字徑一·〇(一·五cm)이다. 各枚兩端의 接續部에는 佛刹의 白色 흔적이 있음은 他例에서와 같은 經名이나 數字의 記入은 아니 보인다(또 이들 十枚가 모두 同一卷의 것이라 하나 調査하지는 못하였다) 紙質은 매우 두꺼운 편이며 첫번 一枚를 除하고는 保存이 良好하다 是은 上下와 行間에는 太細單線이 그려지고 各行 十七字인바 그중 一枚의 末尾에는 本文 끝에 「大般若波羅蜜多經卷一百七十五」이라 하였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七行의 金泥의 跋文이 判讀되었다.

特爲

菩薩戒弟子南瞻部洲高麗國金吾衛大將軍大相太子左藍門卒府卒 金融範

君王萬壽家國一平及先落祖親後亡考妣  
成兄將弟妻與孀焉存者樂生沒者戚  
果金銀字六百般若經也

時清寧年三月 日記